

11시에 만나요

광주 주간 공연 인기...클래식·무용·국악·강연있는 콘서트 등 다채 문예회관 '음악산책'·ACC '브런치 콘서트'·시향 '오티움 콘서트'

'11시에 만나요'

저녁 시간 공연 관람이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오전 11시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무용, 국악, 대중음악, 뮤지컬 등 장르가 다양하고 문학·미술 등을 접목, 랙트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배우는 즐거움'도 있다.

지역 대표 프로그램인 광주문예회관 '11시 음악 산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브런치 콘서트'는 일찌감치 표가 매진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라 수시로 홈페이지에서 예매 정보를 얻는 게 필요하다. 또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오티움 콘서트'도 눈길을 끈다.

광주문예회관 '11시 음악산책'

해설·영상·인문학·클래식 접목
매주 마지막 주 화요일 공연마루
28일 클림트·고흐의 사랑이야기

ACC '브런치 콘서트'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예술극장
29일 무용수 윤전일 갈라 공연
7월 '비정상회담' 다니엘 무대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4월 28일 홍석원 지휘 '바흐 헨델'
하프시코드 아렌트 호로스펠트 협연
6월 30일 김동현 바이올린 협연



피아니스트 임현정



다니엘 린데만

#광주문예회관 '11시 음악 산책'

클래식 전문가 김이곤이 콘서트 가이드로 나서서 '11시 음악 산책'은 해설과 영상, 연주 등 인문학과 클래식을 접목한 기획이다. 올해는 모두 8차례 진행하며 매주 마지막 주 화요일 광주공연마루(6월 부터는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의 주제는 '사랑에 관한 여덟 가지 변주, 올댓 러브(All That Love)'로 가족, 자연, 연인, 자아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만난다.

28일 열리는 첫 공연은 '클림트와 고흐, 꽃과 나무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주제로 열린다. 클림트의 꽃, 윌리엄 터너의 하늘, 고흐의 나무 등 자연을 사랑한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매노스 앙상블이 차이코프스키 '꽃의 왈츠', 파헬벨 '개는 변주곡' 등을 연주한다.

4월 25일은 '헤르만 헤세, 내안의 데미안을 찾아서'가 주제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피아니스트 김소영이 이끄는 영 앙상블이 피아노 5중주로 슈만 '나비', 사라사테 '지코이네르바이젠' 등을 연주한다.

5월 30일 공연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은 '이 중성, 도쿄로 보낸 편지'를 주제로 펼쳐지며 '오빠 생각', '이별의 부산정거장' 등을 연주한다. 6월 27일은 '스메타나와 알폰스 무하, 나의 조국'을 주제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뮐다우' 등을 듣는다.

그밖에 '가브리엘 로세티와 엘리사베스 시달, 어긋난 사랑'(8월29일), '모딜리아니와 백석, 그대를 위해 부르는 슬픈 연가'(9월 26일) '쇼팽과 리스트, 한때 빛나던 우정'(10월 31일), '안토니오 가우디, 신을 향한 미완성의 꿈'(11월 28일)도 대기 중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6.

#ACC '브런치콘서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브런치 콘서트'는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리며 올해 모두 11차례 공연을 진행한다.

29일 열리는 '윤전일 댄스 이모션&주니어 이모



광주문예회관 '11시 음악산책' 공연 모습.

션-One step dream'은 무용수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해설과 함께 갈라공연으로 선보인다. 국립발레단, 루마니아국립오페라 발레단 출신으로 M.net '댄싱 9'에서 우승했던 윤전일이 '사랑에 미치다' 중 '듀엣'을 선보이며 단원들이 '해적' 등의 하이라이트를 공연한다.

4월 26일에는 피아니스트 윤찬의 '살롱 드 첼로'가 열린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중인 윤찬은 첼리스트 박건우가 함께 출연해 '바람의 왈츠', '사라니쉬' 등 창작곡과 엔리코 모리코네의 '시네마천국' 등을 들려준다.

이어 5월 열리는 국악인 남상일의 '놀다歌show'에서는 '장타령', '홍보가 박 타는 대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6월에는 피아니스트 조은아가 '도란도란 콘서트'를 진행하며 7월에는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등에 출연한 다니엘 린데만과 르벳이 재즈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12월까지 대니 구의 '로맨틱 바이올린',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댄싱 바흐 레저 콘서트', '오페라가 들리는 48시간 이탈리아 여행', '김광진의 편지',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이 예정돼 있다.

티켓은 공연 2개월 전 마지막 주 화요일 오픈한

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오티움 콘서트'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전 11시, 오후 7시30분 두 번 공연을 진행한다. 올해는 모두 5차례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일 첫 무대에 이어 4월 28일에는 홍석원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바흐 vs 헨델'이 ACC 극장 2에서 열린다. 하프시코드 연주자 아렌트 호로스펠트와 협연하며 레퍼토리는 헨델 '수상음악' 중 '서곡',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 4번 가장조' 등이 다.

6월30일에는 'South vs North'를 주제로 그리그의 '페르퀀트 모음곡', 시벨리우스의 '핀란드' 등을 들려주며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 협연하는 10월 6일 공연에서는 라벨의 '시간느', 사라사테의 '지코이네르바이젠' 등을 만날 수 있다.

슈베르트의 곡으로만 프로그램을 짠 11월 29일 공연에서는 김영연 광주시향 부지휘자의 지휘로 '피아노 5중주 A장조'와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세월호' 엄마가 아이를 기억하는 법

광주독립영화관 28일 다큐 '장기자랑' 시사회...추말숙 배우 관객과의 대화도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세월호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린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운영하는 광주독립영화관GIFT는 오는 28일 오후 7시 다큐멘터리 '장기자랑' (사진) 시사회를 갖는다. 영화 상영 후에는 이소현 감독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는 '세월호 광주시민상주 모임' 활동가 추말숙 배우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열릴 예정이다.

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육랑문화상 수상작인 '장기자랑'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일곱 명의 엄마들이 연극을 시작하며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아이들을 향한 기억을 이어가는 휴먼 다큐멘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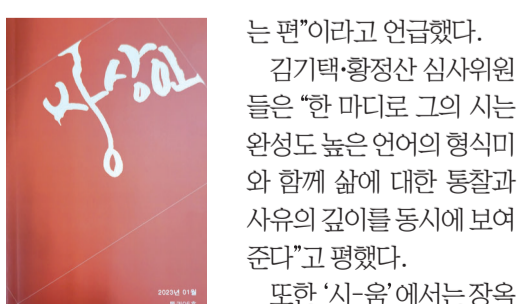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 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세 번째 작품이자 수학여행을 앞두고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명의 연극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시 전문지 '상상인' 5권 나와 초대석에 이호영 아티스트

시 전문지 '상상인'의 통권 5권이 발행됐다. '상상인'은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진혜진 시인이 발행인인, 시인인 광주교육대 겸직 교수가 주간을 맡고 있다. 매 호마다 특실한 기획과 율림이 있는 글들로 내실있는 책을 발행하고 있다. 이번 상상인 초대석에는 이호영 아티스트(미술학 박사)의 '오래된 정원-하루'가 실렸다. 이 박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생의 욕망이다. 욕망으로 탄생하여 시간의 강에 던져진 존재,

생이다. 그러한 생들과 생명이 모여 오래된 정원을 이룬다"며 "정원은 살아있는 것, 피어나는 것들의 욕망이 모여 살아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말한다. 기획특집으로는 이성혁 평론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상상하기'와 신상조 평론가의 '최근 시의 낯선 풍경들'이 수록돼 있다. 제3회 선정문학상 수상자인 이돈형 시인의 수상작 '잘디잘아서'와 4편과 수상소감, 심사평도 볼 수 있다. 이돈형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늘 사는 일이 변방의 일이었다. 변방에서는 뭘 해도 소문나지 않아 쓰다듬을 것도 많고 안아볼 것도 많다"며 "시도 마찬가지다. 쓰다 보니 변방이고 쓰고 보니 변방이었다. 그래도 쓸 때만큼은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외치



는 편"이라고 언급했다. 김기택·황정산 심사위원들은 "한 마디로 그의 시는 완성도 높은 언어의 형식미와 함께 삶에 대한 통찰과 사유의 깊이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평했다. 또한 '시-움'에서는 장옥관, 박민혁, 장석주, 박재구, 조선의, 강대선, 한혜영, 정연홍, 이선애, 김필영, 이서영, 배세복, 김비주 시인 등의 시를 만나고 '시조-움'에서는 서숙희, 최양숙, 고성만 시인 등의 시조를 감상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국 전 장관, 28일 광주서 북 콘서트

오후 7시 광주극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에서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열 다섯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오마이북·사진)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28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출간 후 6만부 넘게 판매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방' 등 고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책이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책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들과의 대화, 질의응답 순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오후 8시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진행을 맡는다. 행사 내용은 유튜브 '오마이뉴스TV'로 생중계된다. 참가비 2만2000원(저자 사인 인쇄본 제공).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가·누정·율리시스... '함께하는 인문학'

전남대 30일~6월 25일

전남대가 그동안 코로나로 열지 못했던 '함께하는 인문학'을 연다. 오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오후 6시)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

이번 인문학에는 위에 언급한 대로 전통적인 시가와 누정의 주제 뿐 아니라 세기의 고전 '율리시스' 등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문학과 역사,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모티브로 인문학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첫 강연은 30일 김신중 국문과 교수가 문을 연다. '전남대학교와 31년, 시가-호남-누정'을 주제로 호남학과 호남문학의 토대가 됐던 시가를 비롯해 누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4월 27일에는 민태운 영문과 교수가 '영어, 영소설 그리고 율리시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특히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세 명의 인물의 하루를 통해 현대문명을 탐색하는 기념비적인 소설이다. 언어 유희, 상징 등 깊고 다채로운



최혜형 교수

장치가 담겨 있어 오늘날에도 연구대상이 되는 작품이다.

5월 25일에는 임채광 불문과 교수가 '율리에트 희극의 언어적 확장-중세소극에서 근대 오페라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마지막 시간(6월 25일)에는 최혜형 사학과 교수와 이강서 철학과 교수가 '서양 고대 세계의 탐색, 나와 우리의 그리스학'을 주제로 인문학 향연을 이어가게 된다.

이성원 인문대학장은 "인문학은 무엇보다 기본이 사람이며 사람에 대한 고귀한 가치와 예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며 "이번 전남대 '함께하는 인문학'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